

“ 동성애는 탈(脫) · 비(非) · 반(反)성경적일 뿐 아니라 반(反)사회적이다 ”

■ 이종윤 원로목사

현재 우리 국민의 74%가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여 퀴어문화축제를 대규모로 가졌다. 미연방 대법원이 동성애를 합법적인 것으로 판결하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21개국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 한국 사회도 술렁거리게 되었다. 동성애를 지지 내지 변증하는 M. Vines와 W. Ken의 입장이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동성애는 탈(脫)성경적, 비(非)성경적, 반(反)성경적 일뿐 아니라 반(反)사회적임을 이 짧은 글에서 지적코자 한다.

脫(탈)성경적이다.

동성애자들은 타고난 본성에서부터 온 것임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법에 대항하는 탈성경적 행위자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나 성경은 그 대상이 동성일 경우 저주한 바가 없다 한다. 주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은 아가페의 사랑을 하되 음욕을 품고 아내를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편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동물과 교합하는 자, 아버의 침상을 더럽히는 자’ 를 사랑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롬1:26, 27) 여기서 순리대로와 역리를 대조시키고 있다. 간음, 간통, 동성결혼은 순리를 따르지 않는 역리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죄다. 오늘날 AIDS와 같은 징벌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거나 脫(탈)성경적 인간은 스스로 멸종을 재촉할 것이다.

非(비)성경적이다.

Vines와 Ken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한 바가 없다 주장하면서, 남색, 매춘, 강간같은 사랑없이 상대방을 남용하는 것을 금한 것이라는 非(비)성경적 입장을 주장한다. 바울은 선천적 동성애자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역사학자들은 고대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찾지 못했다 한다. 그러나 Plato의 Symposium에서 제우스가 인간을 반(半)으로 쪼개었을 때 이성과 동성 두 인간으로 만들면서 각자들은 잃어버린 자기 반쪽을 찾아 재결합했다 한다. 이성은 그 반대성을 찾았고, 동성들은 같은 성을 찾았다. 이 신화는 고대사회에서 이미 동성애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 일듯 하지 말며’ (롬 1:27) ‘서로 향하여는’ 강간 매춘 남색하는 자를 말한 것이다. 19세기 미국에서 노예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교회는 성경에 노예제도를 허용했다고 가르친 오류를 범한 것처럼 오늘날 동성애를 성경이 금하지 않는 것을 교회가 사회적 통념으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라 가르치고 있다는 주장은 비(非)성경적이다. 그들은 스스로 ‘성소수자’ 로 부르면서 교회의 핍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反(반)성경적이다.


레위기 18:22에서 동성애를 말씀하면서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레 11:9-12에서 지느러미의 비늘 없는 조개류, 갑각류의 물고기를 ‘가증한 것이니 먹지말고 혐오할 것이니라’ 는 말씀을 대조시키면서, 현대 기독교인 중에 조개류나 갑각류의 물고기를 먹는 것이 죄를 짓는 것으로 여기는 이가 없듯이, 동성애에 대한 이해(?)도 바뀌어야 된다는 반(反)성경적 입장을 취했다. 신약의 사도들은 모세의 희생제도와 예전적 성결법을 이방신자들에게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고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를 확증한 바 있다. 우상제물·음행·목 매어 죽은 것·피를 먹지 말라는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고 의식법과 도덕법을 구별한 것을 동성애자들은 알지 못함으로 반(反)성경적 해석을 한 것이다.

反(반)사회적이다.

하나님이 세워 주신 가정을 파괴하는 반(反)사회적이다.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남자와 여자, 심지어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반(反)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군대 내 동성애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진보정당의 균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가르치게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법과 함께 제정되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은 더욱 힘을 써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제1503호] 2016년 5월 7일에서 발췌-

우리의 비전 (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임규현 정대은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Jimmy Eppley 선 교 사 강아굽주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사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컷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제 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일(필리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사·현해욱(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이 땅, 땅, 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 이, 난, 쟁, 쥘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비, 벨, 비에, 마움, 차, 짜우, 마카엘, 미안마, 팔리몬, 프로신도, 수레시, 수바삼, 이경명, 알로롱, 비서, 누뽀도, 보디소프, 린톱, 수란전(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근순, 김명일, 김덕수, 권순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박노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의인의 상”

■ 창 22:15-18, 마 25:31-46, 계 19:11-16

구약에는 요셉, 욥, 다니엘이라는 3대 의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롬 3:10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걸일 뿐, 사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입니다.

1. 언제 의인의 상을 주시나?

예수님의 제림과 심판 날에 우리는 지옥의 심판이 아닌, 종류별 상급을 나눠주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가 의지한대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모든 결정권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수고와 열심과 고통을 당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의인의 상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진홍탕 속에서 뒹굴고 있음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 받을 자여 이리로 오라 하실 때 우리의 놀람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무슨 상을 주시나?

왕이신 예수님은 공로에 따라 상급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공훈의 은총으로 상급을 베푸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 25:32). 본문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 함은 헬라어로 ‘크리시스’ , 분리한다는 의미로써 주님은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가르시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가깝게 부르시며 ‘나아와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34절)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가 아닌 예비 된 나라와 왕권까지 주시게 됩니다.

3. 누가 상을 받게 되나?

심판날에는 아버지 앞에 복 받을 자들, 아버지가 선택한 자들, 그들 위해 아들을 준 자들,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자, 그리스도 안에 보전된 자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된 자, 아들로 상속받은 자, 정육과 부패한 심령을 버리자, 그리스도로 의인된 자들이 영생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은 복 받은 자들이요 성품은 어린아이 같은 자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영생(ζωηαιων)입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맺는 말

하나님의 공화로 상 받을 사람 된 우리는 공화를 타인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공화를 베풀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의 공화를 입지 못한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과 함께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그가 준비하신 그 나라를 상으로 받는 천국시민이 될 터이니 이 세상 소망 아닌 영생을 바라보며 종말론적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준권 목사	최광성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이계홍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최양진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28: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5(사순절 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68(32)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 21:15-2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정성국 목사
* 찬 송 Hymn	322(35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요 10:10 인 도 자
찬 송	298(35) 다 함 께
기 도	윤성남 집사
성 경	벧전 5:8-1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땃을 피하는 47지 방법” 설 교 자
* 찬 송	342(395) 다 함 께
* 축 도	인 도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박정자 권사
성 경	눅 9:57-6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나를 따르라”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영안박수강

설 교 서명철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랜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향	박수강	윤주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자꾸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라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 가리라 하시니라 (마 25:45-46)	지난주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웨스트minster 홀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입

1. 교구위원회 교구간사 모임 / 12일(주) 오전11시20분 202호

◆ 알 림

1. 102호 예배
 -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9시-10시
 -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청년부 다락방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701호 예배
 -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3. 702호 예배
 - 청소년 예배(중, 고등부) : 주일 오전 9시-10시
4.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5. 교회학교에서 섬기실 선생님들을 모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순례자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6. 은빛 찬양대 대원모집 (대상 우리교회 65세 이상 어르신 / 연습시간 및 장소: 매주 오후2시 502호)
 - * 더 이상 지체 마시고 찬양의 은혜를 함께 누리러 오세요 *

7. 2017년도 4월 첫 세례식 실시

4월 세례식이 4월 5일(수요일)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에게서는 3월 26일까지 문답 청원서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례식 거행을 위해 4월 5일 저녁 수요예배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장소와 시간은 추후 다시 재 공지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례교육부 임승한 집사(010-7743-322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 혼

1. 이길복 군(이진구, 고점순 씨의 장남)과 신해운 양(5교구 신규철 집사, 전인숙 권사의 장녀 / 3월18일(토) 오후12시30분 영락교회 선교관

◆ 장 례

1. 故 유강국 님(7교구 유미리 집사의 부친 조경연 집사의 장인 / 3월10일(금) 별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71명	222명	256명	1,449명	136명

수입, 지출 내역 보고(3/15)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비 고
3월 5일	전주이월	59,982,950		
"	현 금	48,454,460		십일조 :40,127,200 주일 :4,554,000 감사 :2,950,000 교회학교 :273,260 기타 :550,000
"	찬양운영비		7,700,000	가브리엘찬양대 부활절 찬양 준비금, 특기자 사례
"	교회학교운영비		885,000	초등부 생일축하 외
"	경 조 비		1,300,000	근조화환 외
"	출 판 비		1,470,000	상반기 순례자 운영비, 순례자 발행
"	연합사업비		500,000	영동시찰회비 납부
"	소모품비		24,000	교회 배너 제작
"	통 신 비		8,880	우편물 등기 발송
"	차량유지비		50,000	5404차량 주유
"	복리후생비		43,500	당직자 식대 외
"	수도광열비		7,840	사택 전기료
"	수선유지비		346,550	스텐레스 알콘 용접 외
"	시 설 물		7,000,000	CCTV 설치
	합 계	108,437,410	19,335,770	잔 액 \89,101,640

전주이월금차이원인 2/28일 주중현금:919,000원 계좌입금, 2/26일 중고등부:412,480원 환입.

소품비 추가지출:24,840원(2/19일 전표)

*2017년1/4분기선교비:120,388,320원, 농어촌교회후원금: 20,900,000원

군선교비: 19,800,000원 수입(현금)부족으로 집행하지 못 함.

🌳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은 망국의 한에 통곡한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뜻있는 청년들은 풀무밭 속에 던지움을 받으면서까지 금신상에 경배를 거부했다. 망국의 원인이 바로 우상숭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한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다. 선지자 에스라는 기가 막혀 옷을 찢으며 통곡을 했다.

조선왕조를 망하게 한 것은 당쟁과 허례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것들을 반복하며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은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완전한 인간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이 백성이 너무 빨리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며 일반 대중보다는 그 도덕 수준이 조금은 높아야 할 지도자들이 더 타락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주여, 이 질은 암흑을 몰아낼 우리의 새 아침은 언제이니까?”